



인천항

시간을 거슬러,  
1883 인천 개항장 \_\_\_\_\_

1876년 강화도에서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됐다.  
일본에게 유리한 불평등 조약으로 흔히 강화도조약으로 불린다.  
인천은 부산, 원산에 이어 1883년 세 번째로 항구를 열었다.  
일본을 시작으로 청나라 열강이 첫발을 내디딘  
개항장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1, 3 봄꽃으로 화사한 자유공원, 아래로 인천항이 펼쳐진다  
2 화려한 색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개항장 거리의 차이나타운  
4 1940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건물들



오늘도 인천항은 분주하다. 먼바다로 보낼 제품을 가득 실은 트럭이 분주히 오가고, 항구에 정박한 배들은 자리를 내어주고 다시 떠날 채비를 한다. 국가보안시설인 인천항을 일반인이 들어가려면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40년 전 항구가 첫 문을 열었을 땐 사정이 달랐다. 개항장에는 청나라, 일본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조계지가 형성됐다.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외국인이 각종 상업활동에 제약 받지 않던 곳을 가리킨다.

현재 개항장에서 차이나타운으로 일컬어지는 곳은 1920년대 청관거리로 불린 청국 조계지였다. 붉은색, 노란색, 황금색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페루가 이를 상징하며 골목과 건물에 이국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표적인 명소인 청일조계지 계단은 한쪽은 중국, 한쪽은 일본 건축양식

Travel Talk | 근대건축전시관 |

개항장을 대표하는 근대건축물은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인천개항박물관, 대불호텔전시관(생활사전시관), 한중문화관, 짜장면박물관이다. 통합관람권(어른 3,400원, 청소년 2,300원)을 구매하면 이용이 더욱 편리하니 참고하자.

로 구성되어 당시 분위기를 읽어볼 수 있다. 인천중구청 아래 골목에는 일본식 연립주택인 나가야 주택의 원형이 잘 유지되어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194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건물은 여러 가구가 나란히 이어진 채 외벽을 공유하는 형태로 오늘날에는 1층에 소품가게, 사진관, 카페, 식당이 들어와 관광지로써도 활기를 더한다.

개항장 거리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그 길 끝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이름을 올린 자유공원도 만날 수 있다.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꽃대궐을 이루는 공원 너머로 인천항이 펼쳐진다. 서구 열강의 배가 인천항을 통해 드나들던 시절을 지나 오늘의 평화가 내려앉은 공원에서 수많은 시민이 일상을 보낸다.



## Flavours of Incheon

### 먹고 추억하라

#### 해안칼국수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을 돌아보고 나오는 길에 오래된 노포를 찾았다. 늘 이곳에 오면 먹던 짜장면 대신 직접 빻은 손칼국수의 맛을 음미해본다. 담백한 국물에 부드러운 면발. 1979년 문을 연 식당의 내공이 느껴진다.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15번길 59-1  
☎ 032-766-0706

#### 중국제과 담



개항장 차이나타운에서 먹는 즐거움을 어찌 뺄까. 조상 대대로 이곳에 터를 잡은 화교 출신 현지인들이 직접 만든 화덕만두, 짜장면, 사오롱 바오(만두)부터 공갈빵으로 불리는 달달한 주전 부리도 차이나타운의 대표적인 먹거리다.



📍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39-1  
☎ 0507-1410-8801

#### 관동오리진



관동 1, 2, 3가의 길이가 5리라서 카페 이름도 관동오리진이다. 1940년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관동 1가의 일본식 연립주택에서 팔빙수와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파란만장했던 인천 개항장의 어제를 그려본다.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96  
☎ 032-777-5527

## Under the Sea

### 영양 가득 우리 수산물



#### 강화도

**자연과 바다가 어우러진 '새우젓'의 향연**  
전국 3대 새우 산지로 꼽히는 강화. 강화도 새우는 인삼, 순무, 뽕덩이회와 함께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강화 연안에서의 새우잡이는 불음도, 주문도, 서도, 석모도 근처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강화 새우젓 축제는 매년 10월 내가면 외포리에서 열린다.

#### 무의도

**조개들의 한판 향연 '조개구이'**  
무의도에서는 사시사철 조개구이를 맛볼 수 있다. 갯벌이 지천이다 보니 조개도 그만큼 많고, 신선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영종도와 무의도를 잇는 길 주변에 병풍처럼 둘러 있는 해송 숲에서는 싱싱한 조개구이를 맛볼 수 있다. 키조개, 가리비, 석화 등등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정도다.



#### 영흥도

**'굴'맛이 끝내줘요**  
도심과 가까워 사계절 여행하기 좋은 영흥도. 겨울에는 자연산 굴맛을 보려고 찾는 이들이 많다. 별미인 '굴국'과 '굴회'부터 젊은 층에게 인기인 '굴라면'도 인근 식당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영흥도 주변 1000ha의 갯벌은 섬 거주자인 6개 어촌계가 맨손 어업권을 갖고 있어 일반인의 무분별한 채취는 삼가는 것이 좋다.



#### 옹진군

**바다가 만든 꽃 '꽃게'**  
연평도 꽃게는 지방질이 낮고 각종 단백질이 풍부해 입맛을 돋워준다. 고추장을 풀어 끓인 꽃게탕, 꽃게찜은 말할 것도 없고 게장으로 담가두고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다. 연평도 꽃게는 4월 초~6월 말까지 암컷 꽃게, 9~11월 말까지 수컷 꽃게를 즐길 수 있다.



#### 제주도

**작지만 강한 바다의 감칠맛 '바지락'**  
제주도에서 나는 바지락은 깨끗하고 크기가 고르며 육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바지락과 해물을 푸짐하게 넣은 시원한 바지락칼국수는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다. 제주도 진입로 주변과 바닷길 입구는 물론, 섬 내 해안도로를 따라 바지락칼국수 식당들이 있다.



한반도 역사를 품은 지붕 없는 박물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곳, 강화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선사시대 고인돌부터 마니산 참성단, 고려궁지, 강화산성, 외규장각 그리고 신미양요와 병인양요 등 유구하고 격렬했던 한반도의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해 발길 닿는 곳곳마다 일몰 명소로 이름난 보물 같은 여행지다. 강화도 서남단 화도면의 장화리 일몰 조망지에서 낙조의 절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붉은빛이 나를 휘감아 온 세상이 멈춘 듯 황홀경의 세계로 빠져든다. 탁 트인 풍경 너머로 황혼이 시작되고 붉은 기운이 바다를 단숨에 물들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덩달아 따스함으로 충만해진다. 이야깃거리 넘치는 역사 유적과 빼어난 자연을 품에 안은 강화도로 떠나보자.



수험 안내

**경인북부수협**  
032-933-3401~7  
경인북부수협 수산물가공물류센터  
032-933-3995  
**새우젓산지위판장**  
032-932-5840



강화나들길 ©강화군청



뒷장술해수욕장 ©강화군청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고려산민물장어구이



장어 정식은 양념이 된 장어가 따뜻하게 구워져 나와 직접 굽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식에는 곤드레솔밥이 나오는데, 쌀은 강화도에서 생산되는 '강화섬쌀'을 사용한다. 기본 상차림이 정갈하고 맛있다. 경치 좋은 산을 바라보며 즐기는 여유로운 식사로 손색이 없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270  
☎ 032-934-7628

후포항선수포구어판장



강화도에서 가장 큰 포구인 선수포구의 어판장이다. 싱싱한 제철 회, 조개 등을 구매하거나 15개가량의 음식점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선수포구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물살이 세고 빨이 기름지기 때문에 밴댕이포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니, 밴댕이회는 꼭 먹어보길 추천한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2903번길 56  
☎ 032-937-6041

강화포구



신선한 제철 회를 즐길 수 있는 밴댕이회 전문 음식점이다. 오래된 듯한 내외부 분위기가 사뭇 정감 있다. 음식은 깔끔하다. 특히 이곳의 주메뉴인 밴댕이회무침은 새콤달콤한 양념과 고소하고 두툼한 밴댕이회가 잘 어울려져 없던 입맛도 돌아오게 한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543번길 15  
☎ 032-545-3212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강화갯벌센터

여치리-동막리-동검리를 잇는 강화 남단 갯벌은 최대 6km까지 펼쳐진다. 갯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강화갯벌센터에서는 농계, 염생식물, 저어새 등을 관찰할 수 있어 생태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293-37  
☎ 032-930-7064



강화나들길

아이들과 함께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 연인과 낙조를 감상하며 한껏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강화나들길이다. 20개 코스별로 스탬프를 찍을 수 있다.

📍 코스 7. 낙조 보러 가는 길  
화도공영주차장 - 갯벌센터 - 화도공영주차장 (20.8km, 6시간 40분 소요)  
☎ 강화관광플랫폼(종합관광안내소) 032-934-7500

강화도 새우젓 축제

강화군 외포리항에서 10월 중순에 열리는 새우젓 특산물 축제로 새우젓김치 담그기, 시식회 등 먹을거리와 즐기거리가 풍부하다. 불음도, 주문도, 석모도 등 강화연안에서 잡은 젓새우와 국내염전의 소금으로 담근 강화도 새우젓은 김장철을 맞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547-78  
☎ 외포항젓갈수산물직판장 032-932-9399



알알이 빛나는 섬으로의 여행

옹진군은 황해도 남서부와 경기도, 인천 앞바다에 산재하는 11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졌다. 그중에서 인천항 여객연안터미널에서 뱃길로만 4시간, 서해의 품속을 파고들어야 다다를 수 있는 백령도, 하늘이 허락해야 드나들 수 있다는 이곳에 도착하면 크고 작은 공돌이 파도에 맞부딪히는 고운 소리가, 해안을 따라 펼쳐진 위풍당당한 기암절벽의 절경이 여행객을 반긴다. 특히 백령도 두무진 아래 선대바위는 '늑은 신의 마지막 작품으로 불릴 만큼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자랑한다. 유람선을 타고 해안을 따라 돌면 형제바위, 부엉이바위, 코끼리바위 등 만상의 기암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이토록 놀랍고 경이로운 풍광에 일렁인 벽찬 감동은 쉬이 가시지 않는다. 알알이 빛나는 장관에 머물 수 있는 곳, 바로 여기다.



수협 안내

**옹진수협**  
032-865-2254~7  
**연안위판장**  
032-883-8159



백령도 심청각  
©옹진군청



옹진군 굴업도 코끼리바위  
©한국관광공사 사진갤러리(이근섭)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

동이네맛집



백령도의 오래된 맛집으로 내부도 깔끔하다. 식당에서 사용되는 해산물 재료 대부분은 매일 바다에서 낚시로 공수해 온다. 신선도가 그만큼 높다. 상에 올라오는 반찬으로 사용되는 채소 및 나물 역시 주인장이 직접 농사지어 내놓는다. 특히 홍합밥은 건강한 맛 그대로를 선사한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41  
☎ 032-836-9393

선향횃집



자연산 회와 함께 나오는 기본 반찬들이 모두 해산물이다. 말 그대로 해산물을 맘껏 맛볼 수 있다. 엄청난 양의 바지락이 들어간 쫄깃쫄깃한 바지락칼국수도 꼭 먹어봐야 하는 집이다. 칼국수와 함께 나오는 김치 역시 별미다. 바로 앞이 바다로 현지인도 자주 찾는 맛집이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34번길 113  
☎ 032-889-2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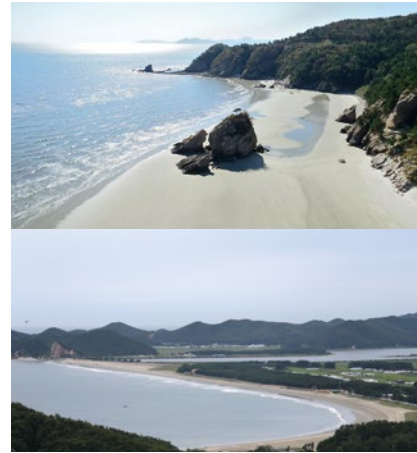
백령도어화



백령도에서 40여 년간 횃집을 운영한 어머니의 내공과 백령도에서 가족이 보내오는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주재료는 모두 백령도에서 쾌속선을 타고 온 자연산으로 양념을 적게 넣고 조리해 양념 맛이 아닌 재료 본연의 풍미가 있다. 맛과 양, 청결까지 부족함이 없다.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39-1  
☎ 032-565-2222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



백령흰나래길

백령흰나래길은 사랑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흰 새의 날갯짓에 담아 보낸다는 의미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아름다운 생태 경관을 즐기는 한편, 분단의 아픔을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공간도 둘러볼 수 있다.

☒ 코스 4. 은빛사곶길  
옹기포항 입구 - 사곶해변 진입부 - 제방길 초입부 - 담수호 배수갑문  
☎ 백령면사무소 032-899-3511-8

옹진섬 농수산특산물 직거래장터

청정바다와 오염되지 않은 농토에서 자라 신선하고 품질이 우수한 옹진군의 농수산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행사다. 갯 잡아올린 수산물과 채소류 등을 선보인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파도광장  
☎ 옹진군 경제교통과 유통판매팀 032-899-2570



장봉도 벚꽃축제

옹암해변에서 출발해 말문고개를 돌아 다시 옹암해변에 도착하는 걷기 행사다. 왕복 4km 정도로 약 70분 소요된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해변도로에서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옹암해변 일대  
☎ 북도면사무소 032-899-3410



도심 가까워서 즐기는 완전한 섬의 정취

어디론가 편하게 떠나고 싶지만 뻘한 여행지는 싫다? 그렇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영흥도다. 영흥대교가 세워지면서 인천과 영흥도로 오가던 1시간 뱃길이 대부도와 선재도를 거쳐 영흥도까지 육로로 이어졌다. 바다를 가로질러 놓인 다리만 두 번(선재대교, 영흥대교) 건너면 완전한 섬의 정취를 흠뻑 누릴 수 있다.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에 진주를 뿌려놓은 듯 울망줄망하게 흩어진 섬들, 하루에 두 번 바다가 갈라져 신비한 바닷길이 열리는 목섬과 측도, 널따란 모래사장장과 싱그러운 초록빛 기운을 머금은 해안 산책로까지, 눈길 보내는 곳마다, 거니는 발걸음마다 명미한 풍광이 맞아준다. 차로 떠나는 이색적인 섬 영흥도에서 배로 즐겁고, 배로 매력적인 정취를 느껴보자.



수협 안내


**영흥수협**  
032-882-1348

**영흥위판장**  
032-886-4330

**진두항 영흥수협 회센터**  
032-882-1348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영흥도 바지락해물칼국수**



바지락과 황태를 베이스로 한 국물이 깔끔하다. 직접 반죽한 손칼국수로 쫄깃한 식감이 살아 있다. 칼국수 한 그릇으로 아쉽다면 손만두도 추천한다. 조심하지 않으면 찢어질 듯 얇은 만두피에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 있어 속이 든든해진다. 만두 맛집이 아닌가 싶게 독특한 맛과 식감을 자랑한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북로 195  
 ☎ 032-886-3644

**바람의 마을**



커다란 철판에 피자처럼 먹음직스럽게 꽉 들어찬 해물파전을 맛볼 수 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파전에 오징어와 새우가 듬뿍 들어 있어 씹는 즐거움이 있다. 탱탱한 굴을 아낌없이 넣은 영양굴밥도 잊지 말고 먹어보자.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 63  
 ☎ 032-889-0725

**본토칼국수**



영흥도 수산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본토칼국수는 바지락칼국수, 꼬막비빔밥 맛집이다. 본 메뉴가 나오기 전 보리밥과 조갯국이 서비스로 제공되는데 입맛을 한껏 돋운다. 주인장 인심이 요리에 그대로 담겨 있어 칼국수엔 바지락이 듬뿍, 비빔밥엔 꼬막이 한가득이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북로 23  
 ☎ 032-890-4145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선재 어촌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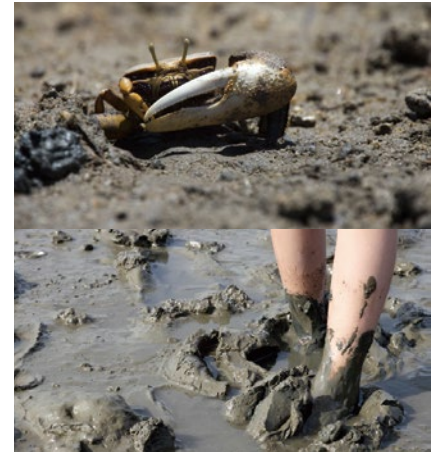
영흥도와 대부도 사이에 있다. 경관이 빼어나 선녀가 내려와 춤을 추던 곳이라는 뜻의 선재도는 동족과 바지락을 잡거나 낚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잡은 조개로 요리도 가능하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 5  
 ☎ 선재어촌체험마을 032-888-3110

**영흥도 알리기 등산문화축제**

옹진군산악연맹에서 영흥도의 빼어난 경관을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바다 내음과 숲 향기를 동시에 맡으며 섬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국사봉까지 등반 후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옹진군산악연맹 032-886-9306



**영암 어촌체험**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할 수 있는 생태 체험이다. 갯벌에서 조개와 고둥을 잡을 수 있으며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1.65km 거리에 농어바위체험장, 형제바위체험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327(농어바위체험장), 1700-15(형제바위체험장)  
 ☎ 농어바위체험장 032-888-5633  
 형제바위체험장 032-888-5631





이리도 가까이에 이다지도 멋진 섬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거쳐 무의대교를 건너면 열린 바다 내음과 풀 내음이 코끝을 스친다. 바깥에서 바라보면 말을 탄 장군이 옷깃을 휘날리며 달리는 모습 같다고 이름 지어진 무의도(舞衣島)다. 과거에는 배를 타야만 닿을 수 있었으나 2019년 무의대교가 개통되며 많은 이가 찾고 있다. 접근성도 좋고 무엇보다 산과 바다를 한 번에 여행할 수 있다는 매력 덕분인지 입소문을 빠르게 탔다. 바다와 갯벌은 물론, 시원한 서해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무의도는 섬 크기에 비해 구석구석 볼거리도 많고 등산, 백패킹, 차박, 드라이브까지 섬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역시 다양하다. 아름드리 소나무 숲과 멋들어진 해안 절벽, 홀연히 나타난 모래 해변과 아늑한 바다를 조망하다 보면 탄사가 절로 나온다. 이리도 가까이에 이다지도 멋진 섬이 있을 줄이야.



하나개해수욕장 ©인천 중구청



수협 안내

인천수협  
032-220-2114  
연안위판장  
032-886-9723



소무의도 ©인천 중구청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무의도횃집



하나개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자연산 활어회 전문점이다. 싱싱한 해산물이 한 상 가득 차려지는 푸짐하고 맛있는 곳이다. 관광객뿐 아니라 현지인이 인정하는 맛집으로 여름 별미 물회부터 계절별 다양한 제철 수산물의 싱싱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중구 하나개로 151-10  
☎ 032-752-2410

해안선



맛과 분위기가 신선하고 깔끔하다. 회 정식을 주문하면 기본 회와 함께 크림새우, 새우탕수육, 고등어구이 등 넉넉한 상차림이 차려진다. 맛 또한 군더더기 없다. 마무리는 메인 음식의 종류에 따라 매운탕 또는 맑은탕이 나온다. 특히 맑은탕의 진한 시원함이 압권이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93 이리움프라자 202호  
☎ 032-822-8871

대북



속까지 시원한 복자리(맑은탕)를 맛볼 수 있다. 맑은탕이 나오면 맑은탕에 가득 들어간 콩나물과 미나리, 썩갠 건져 양푼에 넣고 달래장과 맑은탕 국물을 한 손가락 넣어 비벼 먹는 밥맛은 환상적이다. 밑반찬 모두 정갈하다. 특히 밑반찬으로 나오는 복겉질무침은 별도로 주문해 먹고 싶을 만큼 훌륭하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19번길 5-8  
☎ 032-421-2384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무의바다 누리길

대무의도와 소무의도를 연결하는 교량을 지나 소무의도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길이다. 총 8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으며, 곳곳에 쉼터와 벤치가 있어 쉬엄쉬엄 걷기에 좋다.

📍 4구간. 부처개미길

만선과 안전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지내던 곳으로, 주변 조망이 빼어나다.

☎ 중구 문화관광과 032-760-6456

포내 어촌체험

조개 캐기(4~10월), 조개공예(1~3월, 11~12월), 건강망 체험(4~6월, 9~10월), 다슬기·방게잡이(4~7월, 9~11월)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301번길 19-16  
☎ 포내갯벌체험장 032-752-5422



큰무리 어촌체험

어장 체험, 바다낚시 체험, 햇불게잡이 체험 등 다양한 어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산생물 관찰, 씨름, 미니축구 등 갯벌 체육 활동도 경험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26-3  
☎ 큰무리어촌체험마을 032-751-0310





해넘이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그림

섬과 육지를 잇는 '제부도세길'을 따라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제부도. 이번에는 하늘길도 열렸다. 화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서해랑 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했는데, 물때에 맞춰 외길을 드나들어야 했던 제부도 여행에 신뜻한 바람을 몰고 왔다. 이제부터가 색다르게 제부도를 즐길 시간이다. 제부도해수욕장 내 매바위 근처가 전통적인 일몰 명소였지만, 최근에는 케이블카를 함께 담을 수 있는 전곡항 주변이 사진 촬영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일몰' 하면 화성 8경 중 하나인 궁평 낙조도 빼놓을 수 없다. 넓은 모래사장과 해변을 따라 조성된 해상 곤락지가 한데 어우러져 황홀한 낙조를 만끽할 수 있다. 저무는 해는 하루의 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일몰의 성지라 불리는 이곳에서 힘찬 시작을 다짐해보는 건 어떨까.



수협 안내

- 경기남부수협  
 031-220-7500
- 수산물가공유통센터  
 031-681-6980~1
- 궁평리위판장  
 031-357-8161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은성수산



기본 밑반찬을 비롯해 칼국수에 들어가는 바지락까지 어촌계 조업으로 잡은 해산물로 만들어 신선도가 단연 으뜸이다. 특히 얼큰하고 시원한 매운탕과 봉장어 짜글이 맛이 일품으로 이 맛을 찾는 손님들이 많다. 직접 잡은 돌게를 반찬으로 사용하고, 채소나 쌀 역시 직접 농사지어 사용한다.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안길 121  
☎ 031-358-7123

남양옛날불낙지



30년 역사의 동네 맛집이다. 상호처럼 입안을 얼얼하게 하는 매콤한 맛의 불낙지를 맛볼 수 있다. 매운맛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매운맛을 상중화로 구분할 수 있으니 기호에 맞게 주문하면 된다. 아들이들한 식감을 원한다면 산낙지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227  
☎ 031-356-8950

어부의 집



제부도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껏 조개를 즐길 수 있는 무한리필 조개구이 전문점이다. 저렴한 가격에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을 맛볼 수 있는 바지락칼국수도 단골들이 많이 찾는 메뉴다. 특별한 날에는 살이 짝 찬 랍스터를 즐길 수 있는 어부 특선 메뉴도 준비돼 있다.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해안길 240-1  
☎ 031-357-6040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화성 뱃놀이 축제

전곡항에서 펼쳐지는 수도권 최고의 해양 레저 축제. 배를 타고 떠나는 신나는 항해, 다양한 놀거리가 있는 관광객 참여형 축제를 대표한다.

☎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일대  
☎ 화성시문화재단 031-8015-8278



궁평리 어촌체험

서해안의 해안과 갯벌 등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완만한 경사의 간척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특별한 갯벌 체험이 가능하다.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069-11  
☎ 궁평리어촌계 031-356-7339

제부도 제비꼬리길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에 선정된 제부도 제비꼬리길은 빨간 등대에서 해안 덕과 탐재산의 능선을 따라 걷는 길이다. 탐재산 정상에 오르면 서해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 제부모세마을 031-357-3808

